

일상을 지켜주는 히어로, “나는 쿠팡친구입니다”

2022. 3. 22.

밖으로 나서기 조심스러웠던 지난 1년 365일, 우리 곁을 지켜준 일상의 히어로들이 있습니다. 서울, 대구, 제주도의 저희 집 앞에 그분들이 계셨습니다. 추운 겨울 장보러가지 않고도 따뜻한 식사를 챙길 수 있었어요. 기저귀며 분유며 하루만에 도착하니 육아도 한결 편해졌습니다.

우리 일상 속 히어로 쿠팡친구를 소개합니다!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